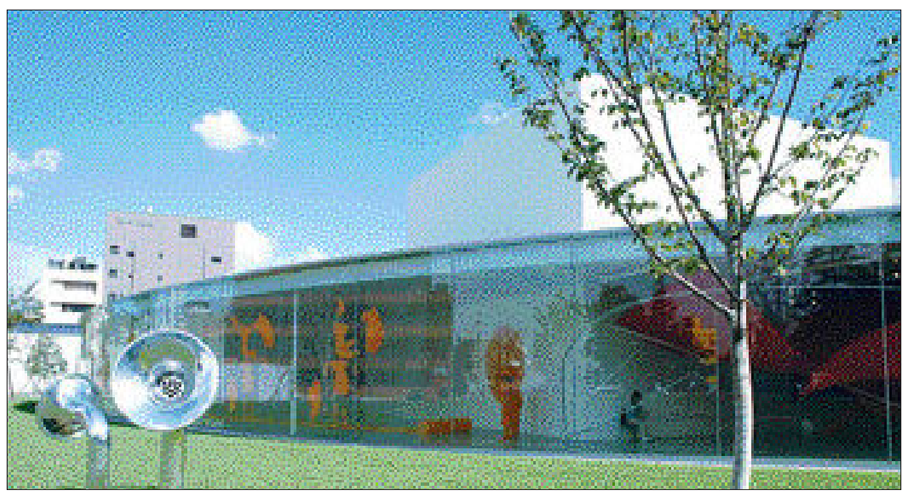
김포천 대주문화재단 이사장 특별기고

日 가나자와 미술관의 기적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외부 전경

"미술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열정이다. 그리고 미술관장은 경영자여야 한다."

근래 세계적으로 문화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을 방문했다. 가나자와는 일본 북륙지방(北陸地方)에 있는 인구 46만의 고풍스럽고 매우 일본적인 한적한 도시다.

200억엔(1천60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지난 2004년 10월9일에 개관한 이 미술관에 2005년 10월8일까지 1년동안 157만명, 그후 2006년 10월8일까지 1년간에는 120만명, 그래서 개관 2년 동안에 277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가나자와 시민이 40%, 외국인을 포함 시외에서 찾아온 관람객이 60%라는 통계가 나왔는 데, 요즘에는 외국인 관람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계산하게 했더니, 개관 첫해 1년간에 328억엔(2천624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봤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미노 미술관장은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눈으로는,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본다. 지식수준이 높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가까이 하기 거북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밝은 얼굴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소풍을 미술관으로

우선 시립(市立)이라는 말을 미술관 이름에서 지웠다. 시립이라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21세기라고 하는 불가해(不可解)하면서도 기대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름으로 짓고자 했다.

영어로는 외국인들이 21세기라는 말에 관심을 덜 가질 것 같아서 Contemporary art(현대 미술)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다.

현대 미술관이기 때문에 지난 날의 명작을 구입할 필요가 적어 작품구입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첫번째 기획으로 생각해 낸 것이 '뮤지엄 크루즈 프로젝트(Museum cruise project)'다. 어린이들에게 현대 미술이라는 것을 체감(體感)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작품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고, 손수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관기념으로 가나자와 시내의 초등학생, 중학생 전원을 미술관에 무료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4만명의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팸플릿, 그림책을 만들고, 설명서를 전시관 입구에 비치하는 등 관람에 관련된 여러가지 준비를 했다. 버스를 준비해 오가는 길을 편하게 해주고, 크루(Crew)라는 전문요원이 있어 설명도 하고 질문에 응답을 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돌아갈때는 무료 입장권 2장을 또 나눠주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모나 가족들과 함께 다시 미술관을 찾아 올 수 있게 했고, 어린이들이 가족들에게 안내를 겸해서 작품 설명을 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족소풍을 미술관으로 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미술관에는 큐레이터 외에 에듀케이터(Educator)라는 직책도 있다. 2004년 베니스건축비엔날레에서 미술관 신축 건물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이 미술관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술관 전체는 둥근 모양이고 전시관 건물은 사각형인데, 천장의 높이는 전시관마다 다르고, 전시관의 넓이도 각각 다르며 형태도 다양하다.

벽은 투명한 유리로, 출입구는 5개인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도중에 빠져나갈 수도 있게 돼 있다. 안에는 여러가지 건물이나 도로가 있어 거리를 걷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으며, 천장은 빛나는 유리로 돼 있어, 밖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가나자와 역에서 미술관까지 보통 걸음으로 30분정도 걸리는 도로가 있는 데, 이 길을 상점이나 식당, 조각품으로 꾸미는 '아트 애비뉴'(Art avenue)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관람객 유치 공동 노력

미술관 레스토랑은 우아한 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도쿄의 모리미술관, 가가와 현의 새로운 미술관, 이렇게 세 현대미술관이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공동의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한다.

가나자와 시에서는 지난 2005년 문화부시장 직책을 신설한 뒤 21세기 미술관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미노 부시장, 아니 미노 미술관장은 말했다. "미술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열정이다. 그리고 미술관장은 경영자여야 한다."

현장과 시각

'엑스포 낙관론' 경계해야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지난 17일 여수를 방문한 빈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V.G. LosCertales)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이 '2012 세계박람회 유치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 지역에서는 장밋빛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로세르탈레스 총장은 "한국은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지만 경쟁국가인 모로코와 폴란드는 리저널 플레이어(Regional player)에 불과하다"며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또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포진해 있는데다,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시민들의 열정도 뜨겁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하게(seriously) 임한다면 유치 가능성은 매우 좋다(very good)"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이 한 마디에 고무된 모습이 역력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환한 표정으로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과 친구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았으며, 오현섭 여수시장도 기자들에게 "잘 되어가고 있답니다"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박람회 유치는 98개 BIE회원국의 전체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평가 역시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실제로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박람회 유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을 '지나치게 띄워 줬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모로코와 폴란드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털어놓았다.

그는 모로코에 대해서는 "아랍권 국가로서, 회교권에서는 처음으로 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만큼 아랍권과 아프리카 국가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현재의 국제상황에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아랍권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폴란드에 대해서는 "유럽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25개 국가가 회원) 소속 국가로서, 유럽 및 EU소속 국가와 단결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지적은 한국 측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과 기대에 묻혀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전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사무총장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실제로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는 모습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투표직전까지 유치를 낙관했다 중국 상하이에 뼈아픈 일격을 당했던 지난 2002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다.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의회 첫 시정질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부족현상 심각 제2순환도로 통행료 시스템 재점검"

지난 7월 제5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24일 시정질의에서는 서민주거대책, 제2순환도로 통행료 문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조호권 의원은 "광주시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 공급 부족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광주시 도시공사의 경우 현재 3천44가구, 주택공사 4천784가구 등 모두 7천828가구가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9월말 현재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8천866가구에 달해 광주시의 임대주택 보급 정책 등 주택보급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또 이날 시정질의에서 나종천 의원은 "시민들이 제2순환도로 요금징수시스템의 신뢰성과 영수증교부 등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조작이나 누락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시민들의 혈세가 더 지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며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요금징수시스템 검증위원회를 구성, 검증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답변에서 김영진 광주시 건설국장은 "89년부터 92년까지 추진했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주택의 협소성과 주거 열악성 등으로 폐지되고 98년부터 전용면적 14평~18평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바뀌었으나 주거비 능력부담이 낮은 가구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적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주거비 부담능력이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민임대주택 유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제도 활용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김 국장은 '제2순환도로 통행료 보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한 바 있다"며 "그래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점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